

## 제 6 과: 요한계시록 13 장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작기도:**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 장 1-10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여기서 요한은 다니엘 7 장의 이미지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7 장에서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톰 라이트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 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괴물이 나온다. 괴물은 이런 유의 저작에서 대부분 그렇듯 악몽의 소재다. 첫 번째 괴물은 날개 달린 사자다. 두 번째는 입에 어금니 셋이 있는 곰이다. 세 번째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이다. 그 뒤에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더 크고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나온다. 네 번째 짐승은 열 빨을 가졌고, 다른 작은 빨들이 그 주위에서 자랐다.

해석은 아주 명확하다. 이 괴물들은 네 나라를 나타내고, 그 중에 네 번째는 특히 크고 잔인한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 빨들은 다른 왕들을 나타내고, 그 중에 마지막 빨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직접 모독한다. 그런 다음 엄청난 역전이 벌어진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법정 심리를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아 최후의 거대한 괴물을 고발하고, 그의 권력을 파괴하고, 대신 그것을 영원한 우주 통치권을 받기 위해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에게 넘겨 주신다.

요한이 이 다니엘서 본문을 깊이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 요한을 비롯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읽었을지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실제 짐승, 지중해에서 기어 올라와 거룩한 땅을 공격하는 트리피드 (Triffids, 머리가 셋 달린 식물성 괴물—역주) 괴수의 큰 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이 괴물이 대표하는 지상의 실재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1 세기에는 정체 확인이 어렵지 않았다. 요한의 단일 괴물은 다니엘서의 네 괴물이 하나로 압축되어 일부 표범, 일부 곰, 일부 사자에, 열 빨과 일곱 머리를 가진 괴물이다. 이 괴물은 로마다 (117-118).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당시 이 서신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 특정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7 장의 인용도 이해했고, 요한이 기록한 이 짐승이 로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독자가 모두 즉각 알아차렸을 중요한 핵심 특징은, 괴물이 경배를 요구했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두운 이교도 신들과 함께 경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시기의 로마 동정을 얼핏 보아도 고유한 사연을 알 수 있다. 황제마다 차례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런저런 고대의 이교 신과 연관된 의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단 황제가 신이 되면, 다른 신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는 한 지역과 부족의 신을 계속 경배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요한이 다채롭게 인용하는 책의 처음 여러 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온 세상이 괴물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여기에 묘사된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하기를 거절한다.

이 단락 마지막 절에는 요한이 지금 묘사한 장면을 목상하는 그의 냉철한 현실주의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인생사다. 적절한 반응은, 싫다고 발버둥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11 장은 말 그대로였다. 죽음에 이르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 어린양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괴물의 나라를 대신하고, 용이 자신의 권력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상실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요한이 이 대목에서 하는 일은, 교회의 작은 지역적 투쟁이 의미를 갖기 위해, 또 타협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도전이 의미를 갖기 위해 배경에 있어야 할 더 크고 암울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가 용과 괴물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믿음과 거룩함이 정말 얼마나 지독하게 중요한지 깨닫는다 (117-118).

### 요한계시록 13 장 11-18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요한이 앞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냈던 일곱 서신들과 같이, 요한계시록 13 장도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살았던 그 일곱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 툼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곳에는 (로마에는) 다양한 신앙들이 돌아다녔고, 그 신앙들을 숨 쉬고 울고 말까지 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된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었다. 그 시대의 교양 있는 이교도 저자들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속임수에 조롱을 퍼붓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담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괴물’의 노력을 통해 첫 번째 괴물을 숭배했다. 그리고 그런 수단을 통해 용까지 숭배했다.

더군다나 숭배하느냐 아니냐가 지역 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즉각 나누는 구분선이 되었다. 이때 이후로 머지 않아 일부 지역 공직자들은, 만약 당신이 필요한 제사를 바치지 않으면 시장에 올 수 없다는 공적 요구 조건을 도입했다. 사람을 ‘상거래 가능자’와 ‘상거래 금지자’로 구분하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종류의 표시와 가시적 기호가 있었다. 아주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냉혹한 선택에 맞닥뜨렸다. 어린양에 대한 진실함을 지키고 생계 수단과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괴물에게 굴복해 지역 공직자의 명령대로 황제에게 제사한다면 모든 일이 괜찮을 것이었다. 물론 어린양의 제자로서 당신의 진실성은 괜찮지 않겠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딜레마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항상 실재를 선택하고 패러디를 거부할 거리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오늘날 유사한 주요 쟁점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선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1 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가 ‘신의 아들’ 같은 문구가 새겨진 황제의 동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타협으로 간주될까? 만약 성대한 황제의 축제가 열릴 때, 비록 내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신전으로 가는 군중을 붙잡기 위해 길가에 상점을 연다면, 그것은 타협인가? 만약 내가 도로 위쪽에 있는 황제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든 것임을 알면서 시장에서 고기조각을 산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가? 또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기독교적 생활 방식 이외에 온갖 상상 가능한 다른 생활 방식을 조장하는 신문을 산다면, 그 신문의 스포츠 뉴스만 읽더라도 문제가 되는가? 만약 내가 여러 회사들 가운데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호수와 강을 오염시키고 그 야생 동물을 살해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내가 일하는 은행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노동법 덕분에 지역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노예화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난 라틴아메리카 지역 회사의 주요 투자자라는 사실을 내가 우려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닥뜨린 유일한 질문도 아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생각만큼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재와 패러디를 구별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분별력을 갖추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장의 마지막 절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절 가운데 하나다. 이 절은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패러디를 제시한다. 당시 잘 알려진 여러 공식 중 하나에 의거할 때 숫자 666 이 히브리어 문자로 쓰인 이름 네로 황제(NERO CAESAR)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민족과 언어에서 문자를 숫자로 사용했다. 만약 우리가 A=1, B=2 등등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고안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것이다.)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올 괴물은 네로 황제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숫자 666 은 단순히 암호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것 역시 패러디다. 우리의 추측대로, 특히 요한에게 완전수는 777 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JESUS)라는 이름이 어떤 숫자 체계에서는 888—일종의 초완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의혹이 전혀 없다. 네로와 더불어 그가 대표하고 구현한 체제는 온전한 숫자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이 세 번 반복된, 실재의 패러디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실재였고, 네로는 위험하고 모독적인 복제품에 불과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또 우리의 의식과

우리 사회를 살펴서 우리도 실재인 척하는 가짜에게 어느 정도나 기만 당했는지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120-122).

###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2. 언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 된 신분을 돈, 섹스, 시간, 혹은 권력들을 위하여 세상에 내어주며, 우리의 기숙사 공동체에서, 교실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이슈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3.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_\_\_\_\_고, 그가...

### 마침기도: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속에 세워둔 우상들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기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